

고전교육 시리즈 2

위대한 배움의 도구들, 트리비움

글 안정진 마산제일교회 부목사

‘자기 주도적 학습’이 최근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스스로를 가르치는 능력’이말로 배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교육은 스스로를 가르치는 ‘배움의 도구’들을 중요시 한다. 정확한 의미에서, 이 ‘배움의 도구’들을 숙달하고 익히는 것이 고전교육의 방법이다. 단테의 번역자로 유명한 도로시 L. 세이어즈(Dorothy, L. Sayers, 1893-1957)의 에세이 “잃어버린 배움의 도구”는 현대적 의미의 고전교육운동의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¹ 이 에세이에서, 그녀는 영국사회 안에서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실패했음을 통탄하면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중세의 ‘3학과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배우는 사람은 스스로의 교사이다”라고 했던 어거스틴(Augustine)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전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가르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전교육의 방법인 ‘배움의 도구’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1) 이 에세이를 보려면, 『흔들리지 않는 고전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DCTY)의 ‘부록’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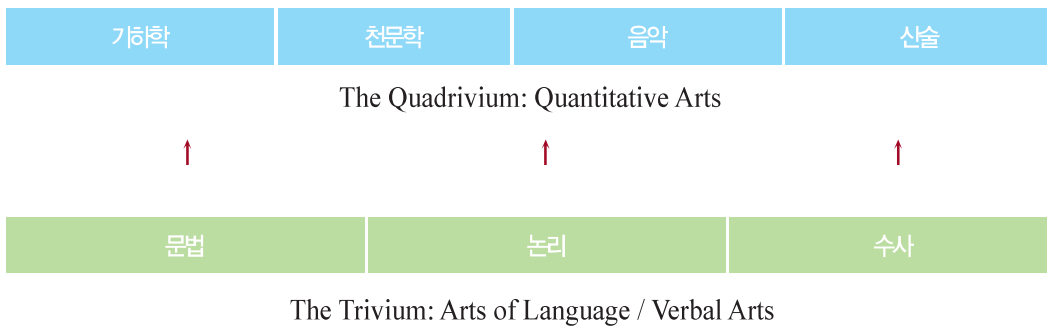
트리비움의 역사

기독교적 고전교육은 그 전제에서부터 세속적인 고전교육과 전혀 다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들이 많다. 고전교육 ‘방법론’의 역사적 기원은 그리스, 로마 시대(대략 주전 600년—주후 47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이유에서, ‘고전교육’은 그리스와 로마인의 교육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 두 문명은 고전교육을 통해 후세대를 준비시킴으로써 거의 천년 이상 동안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스와 로마인의 교육은 주로 문법, 문학, 논리, 수사학 공부에 그 초점을 두었다. 이것이 중세를 지나는 동안 수정되고, 다듬어 지면서 ‘문법, 논리, 수사학’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트리비움(trivium, 3학과)이다. 중세 시대에 트리비움은 ‘세 길’을 의미하는 라틴어로서, ‘네 길’을 의미하는 퀴드리비움(quadrivium, 4학과)을 준비하는 예비과정이었다. 5세기 중반에 이르러, 3학과와 4학과를 합하여 7교양학과 혹은 ‘자유교과’ (Liberal Arts)라는 새로운 표준의 교육이 등장하게 되었다.²

종 고기를 잡는 기술과 비교된다. 이 배움의 기술을 잘 연마함으로써, 일생동안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고전교육은 언제나 ‘3학과 중심의 교육’이었다. 페린은 이 ‘3학과 중심의 고전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마인에게서 물려받아 수정, 보완된 중세 3학과야말로 우리가 복원한 현대 고전교육의 구조, 영감, 지침의 원천 역할을 하였다. 그것이 내가 ‘3학과 중심의 교육’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이유다.³

‘3학과 중심의 고전교육’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계속 갱신되고 발전되었다.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 그리스와 로마의 작가들과 작품들이 재발견되기 시작했고, 상당수의 고대 사본들을 찾아내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어와 라틴어 연구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교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신실한 직분자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을 세웠고, 성경을 원어를 읽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비록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교육의 주제와 방침이 ‘종교적 관점’에



위의 도표가 보여 주듯이,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3학과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완벽한 ‘배움의 기술’(Arts of Learning)을 준비하였다. ‘배움의 기술’은 중

서 ‘자연적 관점’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1900년대 초반까지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전교육이 존재했다. 19세기와 20세기 중반, ‘진보주의 교육’이 득세

2) Marianus Capella(410-449)는 3학과와 4학과로 구성된 7교양학과의 표준을 제시한 사람이었다.

3) 크리스토퍼 A. 페린, 『고전적 교육 입문』 (DCTV), 25. 이 책은 기독교적 고전교육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입문서 중의 하나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공교육은 문법을 배우는 것에 그친다. 즉 ‘논리학교’의 단계로까지 잘 발전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백과사전식의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지를 배우지 못하며, 종합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세이어즈의 표현을 빌리면, 논리학교는 준비된 ‘곡식’을 처리하는 ‘방앗간’과 같다.

하기까지 하버드를 비롯한 수많은 인문고전 대학들은 3 학과와 4학과를 중심으로 한 ‘자유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였다. ‘자유교과’를 가르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지으신 창조세계 전반을 탐구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전문적인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둘째는 이 ‘자유교과’를 통해 ‘자유와 구원’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자유교과’는 종종 교양과목으로 번역되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정도로 가볍게 인식되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교육이며 구원을 제공하는 교육이다. 학생들은 이 ‘자유교과’를 통해 창조세계를 탐구하고, 모든 종류의 거짓과 오류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트리비움과 발달단계

세이어즈는 아이들을 발달 단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앵무새 단계, 당돌이 단계, 시인 단계’ 이 발달단계들은 트리비움의 각 단계들과 조화를 잘 이룬다.

먼저, ‘앵무새 단계’를 살펴보자. 이 단계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정도의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논리적인 설명을 역지로 이해시키려고 무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논리적인 가르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

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관찰과 기억’을 통한 ‘재료의 준비’이다. 당장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

라도 노래와 암송의 반복을 통하여 무한한(ad infinitum)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여기에 어울리는 트리비움의 첫 단계를 ‘문법학교’라 부른다. ‘문법’이란 언어를 배우는 것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각 교과목은 ‘고유한 문법’을 가지고 있다. 수학에서 문법은 곱셈, 나눗셈의 규칙을 포함하며, 지리공부에서, 문법은 산과 강, 다양한 지형, 관습, 의복 등의 세부항목들이 될 것이다. 역사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연대표와 왕의 계보, 시대별 주요 사건들(전쟁과 나라들 간의 협약 등)이 문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중요한 의미에서, 아이들은 이 시기에 신학적 입문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인간이 누구인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를 신구약을 중심으로 배운다. 사도 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등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의미보다 가까이 하고 기억하는데 있다.

다음은, ‘당돌이 단계’로 중학생 정도의 나이에 적용할 수 있다. 첫 단계에서 중요한 기능이 ‘관찰과 기억’이라 면, 두 번째 단계의 중요한 기능은 ‘논리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어울리는 트리비움의 두 번째 단계를 ‘논리학교’라 부른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을 뿐 아니라 도전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품위 있는 ‘논쟁 법칙’을 가르치기에 매우 적합한 시기이다. 이런 이유에서 ‘형식논리’의 훈련이 강조된다. 하지만 자기주장과 논의에 성실하고 사려 깊은 분석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향한 존경심을 가르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존경심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논리란 바르게 논쟁하는 기술이다. 논리학교에서, 학생들은 지금까지 외우고 정리해 왔던 각 과목의 문법들이 어떻게 상호 관련성을 지니는지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창조와 노아의 홍수와 진화론 간에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각 나라의 지형과 주요한 사건들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지금까지 배웠던 교과목들을 종합하고 연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공교육은 문법을 배우는 것에 그친다. 즉 ‘논리학’의 단계로까지 잘 발전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백과사전식의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지를 배우지 못하며, 종합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셰이어즈의 표현을 빌리면, 논리학교는 준비된 ‘곡식’을 처리하는 ‘방앗간’과 같다.

마지막은 ‘시인 단계’이다. 이 단계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종합하려고 힘쓸 뿐 아니라, 자신을 세련되고 품위 있게 표현하고, 믿는 바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법을 배운다. 이 시기에 설득력 있는 연설과 작문 기술이 요구되며 고학년의 경우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고 정기적으로 정치연설, 법정연설, 연구보고서 발표 등의 형식으로 스피치하는 훈련을 한다. 여기에 어울리는 트리비움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수사학교’이다. 논리학교에서는 모든 종류의 학문이 서로 연관됨을 보여주었다면, 수사학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지식이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이 문법, 논리, 수사학은 고전교육의 핵심훈련 내용으로써, 각 교과 의 여러 단계마다 거듭 강조된다. 하비와 로리 블루던은 이 세 단계를 각각 ‘지식-이해-지혜,’ 곧 ‘성경적 3학파’로 고쳐 불렀다.⁴ 어떻게 부르던 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전교육은 방법론과 더불어 그 내용 또한 중요하다. 고전 교육은 “무엇을 공부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써, 라틴어나 신학과 같은 과목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킴으로 다른 것과 차별을 꾀한다(ACCS의 고전학교들은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라틴어를 가르치고 있다). 동시에 기초적인 교육을 위해 역사, 과학, 수학 등 수많은 공통 과목들이 포함된다. 신학은 모든 과목을 섬기는 ‘중’으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모든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여왕’으로 기능한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태양과 같이 모든 과목들에 빛을 비추는 중심 역할을 한다. 고전교육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패키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한 다른 교과목들이 아이들의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방하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너무나 다양하고 넓으니 배워야 할 것은 지천에 널려 있고, 배워야 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문법(지식)학교	논리(이해)학교	수사(지혜)학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앵무새 단계	당돌이 단계	시인 단계
문법학교: 읽기, 토론을 통한 사실정보, 문법, 어휘, 구문론 집중교육	변증학교: 전과목에 걸쳐 논리 학습을 통해 원리와 관계를 집중 교육	수사학교: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설과 작문을 집중교육
방법: 챗트, 노래, 반복	방법: 논쟁, 토론, 논의	방법: 논의, 연설, 모방, 실습

4) 더 전문적인 것을 살펴보기 원한다면, 하비와 로리 블루던의 탁월한 통찰을 담고 있는, 『기독교적 고전교육』 (DCTY)을 참조하라.



즐거운 상상

고전교육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낯선 것임에 분명하다. 이는 현대 교육과 중세 교육이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 교육은 ‘과목(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 왔다. 즉 백과사전식의 지식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한편 중세 교육은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었다. 중세 교육은 먼저 배움의 도구를 다루는 법을 연마하는데 강조점을 두었으며 모든 과목을 활용해서 ‘배움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되게 했다. 현대의 학생들은 다른 것은 다 배워도 이 ‘배움의 기술’만큼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교실에서 배움의 도구들은 파편화된 채 여기 저기 흩어져있고, 학생들은 학과목들을 통합할 능력과 생각하고 논평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결국 대학은 새롭게 확장된 지식중심의 쿼트리비움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세이어즈는 ‘즐거운 상상’을 제안했다. 즉 ‘3학과 중심’의 고전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모든 교육 권위자를 싹 쓸어내고 조그만 학교를 세우고 우리의 노선대로 실험적으로 훈련해 보자. 남달리 유순한 부모들을 모으고, 트리비움의 목적과 교육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교사들을 세우고, 교사가 적절히 다룰 만큼의 적은 학생 수로 반을 만들 수 있도록 큰 건물과 많은 교직원을 둘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면 우리는 ‘개정’ 현대판 트리비움의 교육과정을 완성하고 과연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될 지 지켜 볼 것이다.⁵

3학 중심의 고전 학교를 세우려는 꿈은 지난 30년 동안 북미에서는 ‘현실’로 나타났다. 현재 북미에는 3학과 중심의 고전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초중고 및 대학들은 매년 그 수가 늘어나 미국기독교고전교육연합(ACCS)에 가입된 숫자만 거의 300여개나 된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배움의 도구’들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교육은 배우면 배울수록 ‘배움의 도구’들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학교가 ‘스스로 배우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말이다. 세이어즈는 “교육의 참 목표는 ‘스스로 배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교육 지도는 헛된 수고일 뿐이다”고 했다. 우리 역시, 교육의 참된 목표를 잃고 헛된 수고만 하고 있지 않지는? 그녀의 즐거운 상상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길 간절히 고대한다.

5) 랜달 D. 하트, 『흔들리지 않는 고전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DCTV), 192-193.



안정진 목사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M.Div.),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Th.M, 신약학), New Saint Andrews College에서 M.A. in Trinitarian Theology and Culture을 공부했다. 아내 조성희와 함께 세 딸(송희, 시은, 유진)을 홈스쿨링하고 있다.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성찬에 관한 묵상 에세이』 (SFC)외에 다수의 번역서가 있다.